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사진
원오원팩토리

〈더 빌리지〉
여름캠프 참가신청
The Village / Summer Camp

2016.8.6 (토) — 2016.8.28 (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나·서울·너
SEOUL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후원 몬드리안 재단



□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은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NERIRI KIRURU HARARA)라는 제목으로 2016년 9월 1일(목)부터 11월 20일(일)까지 총 81일동안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세 곳의 분관에서 열립니다. 백지숙 예술감독이 기획하는 <미디어시티서울> 2016은 전쟁, 재난, 빈곤 등 원치 않는 유산을 어떻게 미래를 위한 기대감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맥락 안에서 변화를 배양하고 급진적 단절의 내러티브를 구사하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주목합니다.

□ <미디어시티서울> 2016의 초청으로 함양아 작가가 기획한 <더 빌리지>(The Village)는 국내외 시각예술교육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임시공동체 학습마을'입니다. <더 빌리지>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모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 삶과 사회의 나은 모습을 도모하는 창의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여름캠프 이후, 비엔날레 기간에는 <더 빌리지>의 전시와 함께 여름캠프에 참여한 시각예술교육가와 예술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학습에 기초하여 기획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출판물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6일(토)부터 8월 28일(일)까지 남서울생활미술관을 상호배움과 생활의 경험이 녹아드는 환경으로 변모시킬 이 캠프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작가 함양아

함양아 작가는 네덜란드와 터키,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 비평의 일환으로 예술을 실천해왔으며, 개인의 삶과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연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집 개요

1. 제목 : <더 빌리지>(The Village) 여름캠프
2. 모집인원 : 매주 20명 내외
3. 모집대상 : 시각예술분야 교육자
 - ① 시각예술단체/기관 에듀케이터
 - ② 초/중/고/대안/특수학교 미술교사
 - ③ 시각예술분야 예술강사
 - ④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4. 참가기간 : 8월 6일 (토) - 8월 28일 (일) (월요일 휴관)
 - ① 총 35 과정 (과정별 2시간~4시간)
 - ② 오전 10시 - 오후 8시 30분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름캠프 1 주: 8 월 9 일(화) - 8 월 12 일(금)
- 여름캠프 2 주: 8 월 16 일(화) - 8 월 20 일(토)
- 여름캠프 3 주: 8 월 25 일(목) - 8 월 28 일(일)

- *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미디어시티서울> 2016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 * 8 월 6 일(토)부터 주말에는 다양한 공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여름캠프 모든 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5.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 참가신청

1. 신청기간 : 7 월 4 일(월) 오전 9 시 ~ 7 월 22 일(금) 오후 6 시
* 신청인원이 정원의 2 배수 이상일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 접수 (**참가신청서 첨부파일**)
* 이메일 register@mediacityseoul.kr 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 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 주 전 과정 참가 가능합니다.
3. 참가자 발표 : 7 월 25 일(월) 오후 1 시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
4. 참가등록비 : 1 주 11 만 원, 2 주 22 만 원, 3 주 33 만 원 (전 과정)
* 등록비는 전액 참가자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참가자들에게 '모두의 식탁'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5. 등록비 납부기간 : 7 월 25 일(월) 오후 1 시 ~ 7 월 28 일(목) 오후 5 시
* 참가자 발표 시 등록비 납부에 대해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 참가자 우선 선정기준

- 시각예술분야 교육자
- 참가 신청 이유와 작성 내용의 적합성
- 3 주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참가신청 시 유의사항

- 주 단위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3 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어수업은 영어-한국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대리신청 또는 대리참석은 불가능합니다.
- 정해진 환급기간 이외에 참가등록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배움의 과정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배움의 과정'을 위한 특정한 활동과 수업을 진행할 지식과 경험의 전달자 혹은 매개자로서 예술가, 이론가, 교육자, 활동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 여름캠프 1 주. 8월 9일 (화) ~ 8월 12일(금)

더 빌리지

함양아 (Yang Ah Ham)
화 10:00~11:00 교실 1-2

<더 빌리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간과 시설을 안내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예술과 관료제, 그리고 공공적 삶

박소현 (So Hyun Park)
화/수 11:00~13:00, 금 14:00~17:00 교실 1-2

현대사회에서 관료제가 예술의 생산/생존은 물론 그 유통 및 소비/향유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원, 예술교육 및 예술기관의 확대, 예술시장에의 공공적 개입 등은 예술실천과 우리의 공공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술사적 사건들과 최근 한국사회의 상황을 교차하며 살펴본다.

자명, 공명, 그리고 공감

권병준 (Byung Jun Kwon)
화/수/목 14:00~17:00 교실 1-2

소리의 이해에 기반하여 물성을 관찰하고, 다른 것을 관계지으며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익힌다. 발전에서 시작하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구동 원리를 저항, 커패시터 등 전기소자와 연관 지어 함께 이해하고 활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보고 자신만의 악기로 발전시켜 본다. 일상의 사물에서 공명에 의한 소리의 확장을 경험하고 스스로 소리를 내는데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 직접 만지면서 소리를 느껴보고 전통악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연주 방식을 체득하며 자신의 소리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경험하게 한다.

첫째 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와 사운드의 이해

둘째 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활용한 디지털 오디오와 공명의 이해

셋째 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

몸과 움직임의 모양

노경애 (Kyung Ae Ro)

목/금 11:00~13:00, 교실 1-2

재미있게 몸을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표현한다. 사람들 각자의 생각과 바라봄의 방식을 그림과 사물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미 존재하는 운동기술이나 무용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형태·공간·레벨·거리·다이내믹 등의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춤추고 놀이하면서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그러면서 사람들 각자의 움직임의 방법들과 몸의 언어를 찾아 나간다.

예술, 소셜미디어와 익명성

게이코 세이 (Keiko Sei)

화/수/목/금 17:30~20:30 교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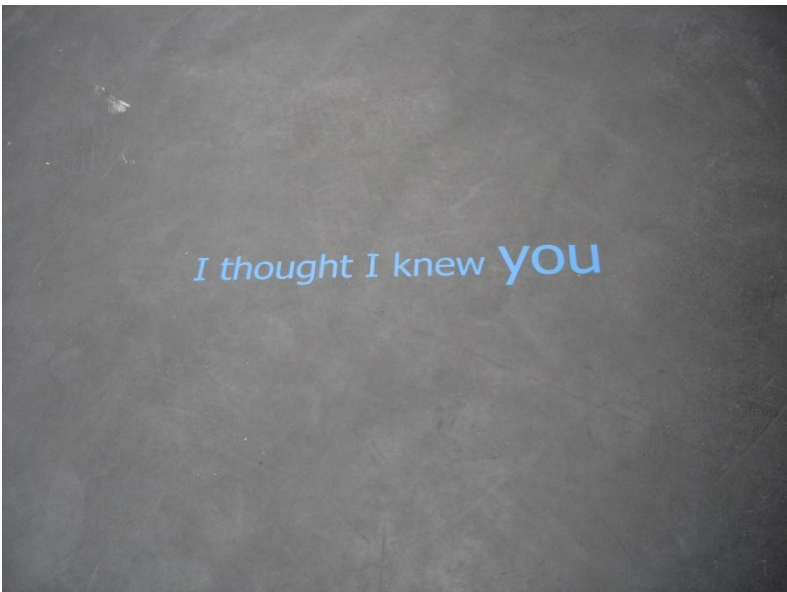
1 부에서는 사회운동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현장의 모습을 살펴본다. 동시에 보통의 사람들이 예술가의 역할을 점유하게 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미디어아트와 아방가르드 정신을 위협하는지를 알아본다. 한편, 디지털 세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익명성'을 지켜야 하는 여러 이유와 형태들을 만들어 왔고, 수많은 '익명'의 정체들은 다양한 문화의 풍조를 생산해왔다. 2 부에서는 예술의 독립성, 자율성과 자주성을 탐구하는 예술가들이 인터넷 세상의 익명성 문화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익명성의 문화를 현실과 사이버공간의 맥락에서 이야기해 본다.

첫째 날, 예술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강의

둘째 날,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한 작품제작과 기획워크숍

셋째 날, 예술과 익명성에 대한 강의

넷째 날, 익명성을 주제로 한 작품제작과 기획워크숍



I thought I knew YOU

● 여름캠프 2주. 8월 16일 (화) ~ 8월 20일(토)

더 빌리지

함양아 (Yang Ah Ham)
화 10:00~11:00 교실 1-2

<더 빌리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간과 시설을 안내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몸과 움직임의 모양

노경애 (Kyung Ae Ro)
화/목/금 11:00~13:00, 교실 1-2

놀이하듯 몸을 움직이면서 독특한 자신만의 움직임의 언어들을 찾아 나아간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글쓰기, 그리기, 배치하기 등을 접목해 즐긴다. 형태·공간·간격·길이·이미지 등의 요소들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만남과 소통을 이루어간다.

창조적 도시와 예술: 예술, 정치, 도시의 삶

파스칼 길렌 (Pascal Gielen)
화/수/목/금/토 14:00~17:00, 17:30~20:30 교실 1-2

2007년 말부터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Herbert Marcuse)의 사회 비판이론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억압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표방하며 창조적 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 창업주의를 권장하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규모 분산형 통제 장치를 발전시킨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창의적인 노동 자체가 억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창조적 도시'의 배경을 분석하고, 활동가들과 창의적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대안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날. 거시적 사회 변화와 글로벌 문화

둘째 날. 거시적 사회 변화와 예술 기관의 움직임

셋째 날. 거시적 사회 변화와 예술가들의 대응: 커뮤니티 아트, 문화 창업주의와 액티비즘

넷째 날. 거시적 사회 변화와 예술 생활권

다섯째 날. 거시적 사회 변화와 공유 도시

조정

사샤 카라리치 (Saša Karalić)

화/수/목/금 14:00~17:00, 17:30~20:30 교실 3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심리학적, 언어학적,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여 정보를 다시 '조정'하는 여러 단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조정된 언어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객관화되고, '재-조정'되며, 이를 통한 공동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 워크숍의 시작점은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작동성과 정치에 활용되는 동시대 언어에서 출발한다.



Saša Karalić, *It's so nice that we don't have to talk about politics any more*, Dutch political slogans / HD Video, 2013

● 여름캠프 3주. 8월 25일 (목) ~ 8월 28일(일)

더 빌리지

함양아 (Yang Ah Ham)

화 9:00~10:00 교실 1-2

<더 빌리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공간과 시설을 안내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피로의 학교

헨크 슬래거 (Henk Slager)

목/금/토/일 10:00~13:00, 14:00~17:00 교실 1-2

현대의 과잉 성취, 과잉 생산, 과잉 커뮤니케이션과 이 과잉적 요소들을 추진하는 무한 긍정주의가 피상적인 교육과 문화에 어떻게 일조했는지를 이야기한다. 현대 예술가들의 영상작품을 통해 깊은 사색을 필요로 하는 탐구의 모델과 교육의 방식이 무엇일지도 함께 생각해본다.

첫째 날. 『고통의 학교』(Agonistic Academies)를 읽고, 함께할 토론의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날. 신자유주의에서의 성과주의와 무한 긍정주의가 만들어내는 과잉된 활동성을 살펴본다.

셋째 날. 학술적인 토론을 위한 6 개의 영상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 한다.

넷째 날. “모든 형태의 사색이 금지된다면 과잉 활동 (hyperactivity)으로 세상은 끝날 것이다.”라는 니체의 발언에 기반하여 사이의 시간을 경험하고, 열정적인 사색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작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마리안느 플로트롱 (Marianne Flotron)

목/금/토/일 10:00~13:00, 14:00~17:00 교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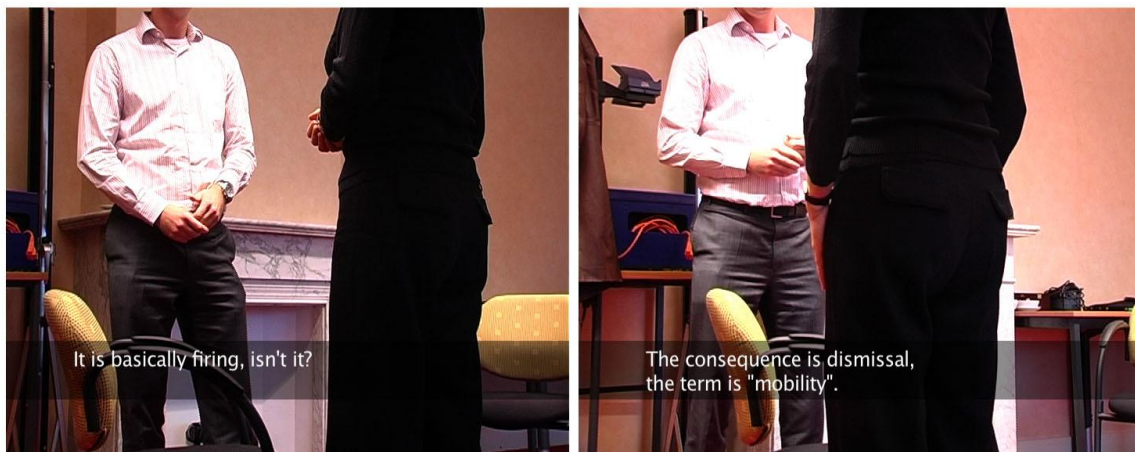
이 워크숍에서는 정치, 경제적 구조가 예술 작품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토론과 인간행동학에 기반을 둔 퍼포먼스 등의 활동을 통해 미술시장에서 ‘경쟁’이 예술가의 작품 생산과 자기규제, 더 나아가 신체에 미치는 작용을 직접 경험해본다. 1부 ‘프로파간다로서의 예술 (Art as propaganda)’에서는 국가의 예술작품제작 지원시스템과 예술작품 유통구조가 결과적으로 작품 생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2부 ‘상품으로서의 예술 (Art as commodity)’에서는 시장경제에서 ‘경쟁’의 구축, 조장, 실천 그리고 예술가의 자기 규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째 날. 초청강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의 예술과 국가의 문화 규제” 실비아 사세 (Sylvia Sasse)

둘째 날. 예술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예술생산

셋째 날. 권력의 구조와 지배성, 예술가의 자기검열

넷째 날. 자기 규제의 도구로서의 ‘경쟁’과 인간행동과 신체, 그리고 예술생산



Videostills from FIRED, 2007, Marianne Flotron

예술교사를 위한 영화 학교

황젠홍 (Chien-Hung Huang)

목/금/토/일 17:30~20:30 교실 1

학생들의 시각을 열어주는 노력을 지속해 온 예술교사를 위한 영화학교이다. 영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영화에 완전히 몰입하여 이미지 뒤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감독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알아낸다.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보길 바라는가에 대한 문제다.

* 위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 식탁

blblbg X 모두의 부엌

화/수/목/금 13:00~14:00

하루에 세 번 반복하는 식사는 개인적인 행위인 동시에 세계와 밀접한 연결을 맺는 일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하루 세끼를 이루고 먹는 과정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시도해본다. 모든 식단은 완전 채식(veg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까운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재료를 쓴다.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지양한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먹는 동물'로서 인간, 세계와 연결된 개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



blblbg X 모두의 부엌

*〈더 빌리지〉는 참여자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점심을 제공합니다.

□ 강사 소개

마리안느 플로트롱 (Marianne Flotron)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 인간 행동과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주체가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고찰해왔다.

파스칼 길렌 (Pascal Gielen)

글로닝언 대학에서 가르쳤고, 현재 엔트워프 대학의 예술사회학 및 문화정치학 교수이다. 예술의 세계적 맥락, 창의적인 노동 그리고 문화정치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 속 예술 (Arts in Society)'이라는 연속 출판물을 저술해왔다.

황젠홍 (Chien-Hung Huang)

타이베이 국립 예술대학 융합예술대학원 부교수이다. 영화와 현대예술에 대한 비평활동을 하며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사샤 카라리치 (Saša Karalić)

암스테르담 게릿 리트벨트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예술의 맥락-예술과 이론의 융합'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다. 사회적 관계의 언어를 통해 정립되는 방법과 이 방법들이 어떻게 시각적 요소와 기호들과 융합되는지 관심이 있다.

권병준 (ByungJun Kwon)

보컬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음악적 장치를 이용한 공연을 선보여왔다. 네덜란드의 실험적인 전자악기 연구개발기관 STEIM 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였고, 현재 음악가, 하드웨어 연구자, 뉴미디어 퍼포먼스 기획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소현 (Sohyun Park)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이다. 예술제도와 예술실천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정치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정책, 박물관/미술관학, 근현대미술사 등의 영역을 넘나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노경애 (Kyung Ae Ro)

2005년 벨기에에서 vzwCABRA 를 설립하였다. 안무가로서 신체 움직임을 기본으로 사운드, 영상,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해왔다. 새로운 움직임 언어와 공연형식을 탐구하고 있으며, 교육사업과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을 기획해오고 있다.

게이코 세이 (Keiko Sei)

저술가이자 큐레이터로 도큐멘타 12 매거진 에디터로 활동했다. 미디어 아트, 독립미디어, 미디어 액티비즘 등에 대한 비평적 강의를 해왔으며, 현재 방콕과 양곤을 오가며 필름과 비디오,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헝크 슬래거 (Henk Slager)

위트레흐트 대학원의 시각예술과 디자인(MaHKU)의 학장이며, 예술적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해왔다. 2006년부터 예술 교육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유럽 예술 연구 네트워크 (European Artistic Research Network, EARN)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미술관과 <더 빌리지>

남서울생활미술관은 1905년 준공된 대한제국(1897~1910) 주재 벨기에 영사관 건물로서, 1983년에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회현동에서 남현동으로 이전 복원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민을 위한 공공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더 빌리지>는 남서울생활미술관을 2016년 8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비엔날레 기간에 점유하여, 국내외 시각예술교육가와 예술가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배움을 나누는 교실, 지식을 공유하는 도서관, 모두를 위한 식탁, 놀이와 대화가 있는 마당, 참여자와 운영자가 모두 모이는 회의 공간, 휴식을 위한 테라스 등 학습을 위한 마을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들이 미술관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현동)

□ 문의

- 이메일 : register@mediacityseoul.kr

- 전화 : (02) 2124-8977

- 담당자 : 허미석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코디네이터)

이성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후원

몬드리안 재단

□ 주최

서울시립미술관